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6월 27일

ISSN 1976-0507 Vol. 1 No. 08

중동 산유국의 산업다각화 동향과 평가: UAE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 복 영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위원 (bypark@kiep.go.kr, Tel: 3460-1149)

박 철 형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chpark@kiep.go.kr, Tel: 3460-1092)

- 최근 중동 산유국들은 에너지산업 의존 경제의 취약성, Post-Oil 시대 성장산업 부재, 과도한 정부고용과 일자리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다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건설 및 부동산업, 금융·비즈니스서비스·문화관광·의료 등의 서비스업과 에너지 연관산업 육성에 주력함.
- 중동 산유국들 중 산업다각화에 가장 앞선 UAE는 최근 5년간 일부 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성장 결과, 비석유부문 비중이 불변가격 기준으로 67.0%에서 73.4%로 증가하여 다각화에 부분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UAE 등 중동 산유국에서는 여전히 인적자본의 부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제조업 기반 취약 등이 산업다각화 진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왕족이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는 수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과잉투자로 귀결되거나 유가하락 시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UN 등에 따르면 인적자본의 질이나 기업환경 등이 세계 하위 수준으로, 이는 민간경제 성장과 외국인투자의 중요한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1. 산업다각화 추진배경

- 중동 산유국들의 산업다각화 추진배경에는 지나친 에너지산업 의존으로 인한 경제구조의 취약성,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의 부재, 실업문제와 외국인 의존적 노동구조 등 경제구조적 문제점들이 자리잡고 있음.
- 높은 에너지산업 의존도로 인한 경제 불안정
 - 중동 산유국들의 경우 석유·가스 부문이 GDP의 30~60%, 수출의 50~90% 이상, 재정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에너지산업에 대한 국가경제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 산유국들은 에너지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국제유가 변동이라는 외부 환경에 국가경제가 좌우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게 됨.
 - 실제로 중동 산유국들은 1980~90년대 국제유가 급락으로 국제수지 악화와 정부채무 급증 등이 초래되면서 극심한 성장 정체를 경험하였음.
- Post-Oil 시대를 대비한 성장산업 부재
 - 중동지역은 세계 원유매장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막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향후 수십 년 내지 100여 년 뒤에는 석유자원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최근 기후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 규제 움직임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화석연료가 고갈되기 이전에 대체에너지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점증함.
 - 중동 산유국들은 현재 원유·가스 수출을 제외하면 마땅한 국부 창출 원천이 없는 상황으로, 화석연료 고갈 또는 대체에너지 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구축이 절실함.

표 1. 중동지역의 석유자원 현황과 추정 가채연수

국명	매장량 (십억 배럴)	세계매장량 비중(%)	생산량 (천 배럴/일)	세계생산량 비중(%)	가채연수 (년)
사우디아라비아	264.2	22.0	11,035	13.5	65.6
이란	137.5	11.5	4,049	5.1	93.0
이라크	115.0	9.6	1,820	2.3	100년 이상
쿠웨이트	101.5	8.5	2,643	3.3	100년 이상
UAE	97.8	8.1	2,751	3.3	97.4
카타르	15.2	1.3	1,097	1.3	38.0
오만	5.6	0.5	780	1.0	19.6
기타	6.0	0.5	943	1.2	4.6
중동 전체	742.7	61.9	25,119	31.0	81.0

자료: BP.

표 2.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국가	내용
독일·일본	G8 정상회담에서 CO ₂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1990년 기준) 수준으로 감축 제안
미국	2008년 말까지 CO ₂ 최대 배출 15개국의 '장기적 목표' 합의 제안
영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6~32%, 2050년까지 60% 의무적 감축
중국	2010년까지 온실가스 9억 5000만 톤 감축 계획(2004년 배출량 56억 톤)
호주	2010년까지 백열등 추방
유럽연합	2020년까지 CO ₂ 배출량을 20~30% 감축(1990년 기준)

자료: 『조선일보』 (2007. 6. 2); 『한겨레신문』 (2007. 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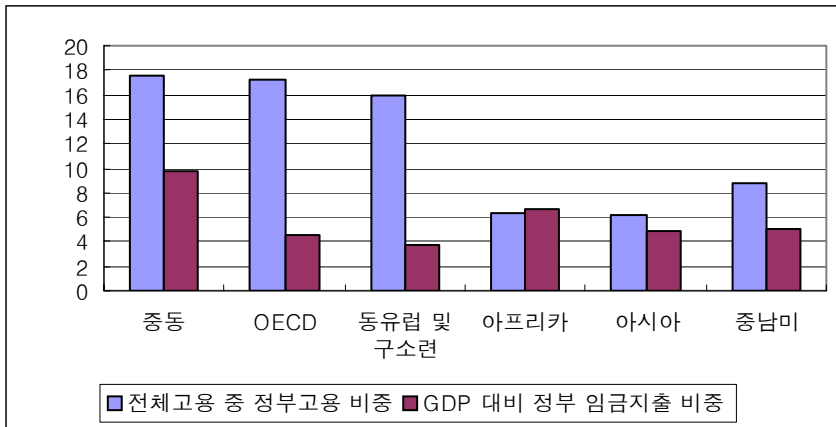
■ 과도한 정부고용 부담과 외국인 의존적 노동구조

- 중동 산유국들의 경우, 1970년대 오일붐 당시 대규모 국책사업 및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시작된 공공부문 고용확대가 이후 국민들의 생계유지 및 실업대책 수단으로 변질되어 정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 1990년대 중동국가들의 정부고용은 전체 고용의 18%를 차지하였으며, 정부 임금지출이 GDP의 약 10%를 차지하여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

-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의 경우 자국민 고용인구의 30~40%를 정부 및 공공부문이 수용하고 있으며, 쿠웨이트의 경우 자국민 고용의 90%를 정부가 담당함.

그림 1. 1990년대 지역별 정부고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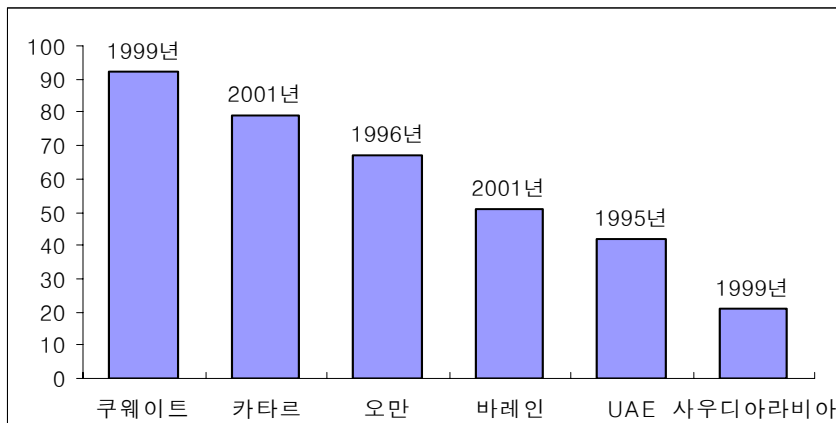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World Bank.

그림 2. GCC국별 자국민 정부고용 비중

(단위: %)



자료: World Bank.

- 반면 보수가 적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민간부문의 노동력 수요는 산유국 전체 인구의 약 50%(사우디아라비아)~80%(UAE)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충족함.
- 주변 아랍 및 서남아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은 민간의 저임금 일용직 육체노동 및 하위직 등 자국민이 근무를 꺼리는 업종에 종사함.

- 한편 GCC 국가의 경우 자국민의 노동력 증가가 1990년대부터 연 4%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10년까지 매년 4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지난 1980년대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임.
- 과도한 정부고용에 따른 재정부담,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 따른 부작용, 자국민 노동력의 빠른 증가세에 따른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중동 산유국들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실정임.

2. 산업다각화 정책의 방향

- 중동 산유국들의 산업다각화 정책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성장산업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집약됨.
- 중동 산유국들의 산업다각화 정책은 앞서 언급한 경제구조적 문제점, 즉 에너지 수출 의존 경제의 취약성, Post-Oil 시대 성장산업 부재, 과도한 정부고용과 일자리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임.
- 따라서 산업다각화의 정책방향 역시 중동 산유국 경제에 내재된 경제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며, 그 핵심은 지속가능한 성장산업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집약됨.
- 지속가능한 성장산업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국 정부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민영화나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제조업에서는 에너지 연관산업인 석유화학, 알루미늄, 비료산업 등이 주요 육성 대상임.
- 이들 산업은 걸프지역의 풍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으로부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임.

- 제조업 기반이 부족하여 서비스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융, 관광, 물류, IT, 비즈니스서비스, 교육 등이 유망한 산업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 각국 정부는 국내산업의 내생적 성장보다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거나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해외기업을 M&A하는 방식으로 catch-up을 시도하고 있음.
- 한편 정부부문의 경제적 비중 축소와 민간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민영화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표 3. 경제자유구역 조성 현황(UAE 사례, 2006년 9월 현재)

분야 국명	항만 물류	항공 물류	경공업	중공업	ICT	미디어 엔터테 인먼트	교육	의료	금융	생명 공학	첨단 기술 개발	기타 특새
두바이	1985	1999	1985 2000 2004	1985 2000 2004	1999 2000 개발중	2001 개발중	2003	2003	2004	개발중	개발중	2000 2001 2002 7건 개발중
아부다비	개발중	-	-	2004	1996	-	-	-	개발중	-	-	-
기타	1987 1988 1995 2000	-	1987 1988 1995 2000	개발중	-	개발중	-	-	-	-	개발중	개발중

주: 숫자는 조성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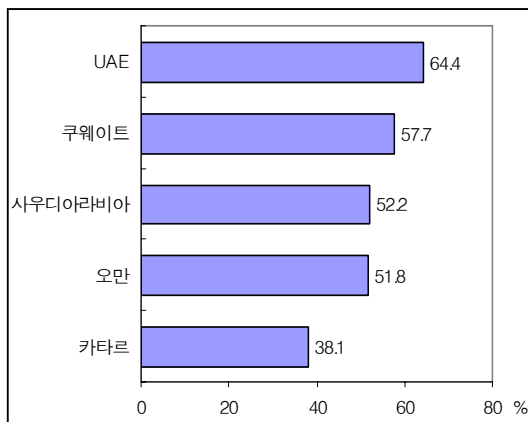
자료: 박복영 외(2006),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산업다각화 정책의 내용: UAE의 사례

- 2003년 이후 중동 산유국들이 추진한 산업다각화 정책의 내용은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UAE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UAE의 사례를 통해서 다각화 정책의 현황을 개관함.
- GCC 국가들 중 석유생산이 미미한 바레인을 제외하면 UAE가 GDP 중 비석유분야 비중이 64.4%(2005년)로 가장 높은 수준임.

- 제조업 비중이 12.6%로 비교적 높고 특히 금융업, 부동산업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 UAE가 다각화에 앞선 것은 1970년대부터 두바이를 중심으로 일찍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걸프지역의 중계무역항으로서 가공무역, 금융업, 관광업 등 일부 산업이 발전해 있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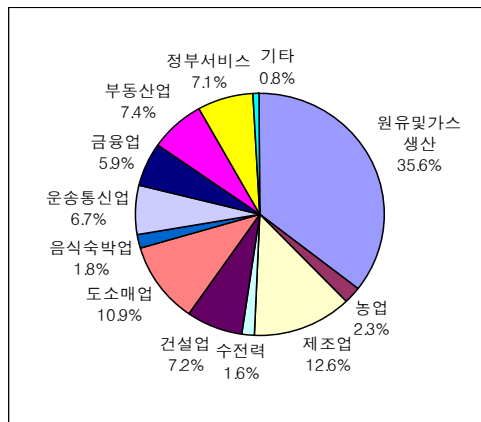
그림 3. 중동 주요국 비석유분야 비중



주: 2005~06년 추정치임.

자료: UAE Yearbook(2007); EIU.

그림 4. UAE의 산업별 GDP 구성



■ 에너지 연관산업의 육성

- 산업다각화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분야는 풍부하고 저렴한 석유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에너지 연관산업임.
- UAE의 제조업 중 대부분은 석유화학, 비료, 의약품 등 에너지 연관산업이며 이 분야가 전체 GDP의 약 10%를 차지함.
- 특히 석유화학은 저렴한 원료비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다운스트림 분야로의 확장을 위해 노력 중임.

- 하지만 여전히 업스트림에 가까운 분야만 발전해 있으며, 자본 및 원료 집약적인 성격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

■ 기타 제조업의 육성

- 대부분의 소비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므로 부분적인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기타 제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매우 제한적임.
- 에너지 관련 분야를 제외하면 알루미늄과 건축자재 분야가 발전하고 있고, 그 외에 제지, 식품, 의류, 가구, 가정용품 등이 일부 존재함.
- 최근 건설붐과 더불어 제철 및 시멘트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알루미늄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4. UAE의 제조업 분야별 현황과 최근 동향

산업	현황	최근 동향
석유화학	Abu Dhabi Polymers Company가 연산 60만 톤의 에틸렌, 폴리에틸렌 등 생산	Borouge-2 확장공사(에틸렌 연산 140만 톤)등 5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진행 중
화학비료	천연가스에 기반한 4개의 화학비료공장이 있으며, 요소 및 질소 비료를 생산하여 수출	아부다비의 Fertil(연산 50만 톤)은 설비 확장 중이며, 두바이는 Adfert 등 3개 공장 보유
제약업	Gulf Pharmaceutical Industry(7개 공장) 등 10여 개 업체가 존재	Neopharma, Globalpharma, Medpharma의 3개 업체가 최근 신설되는 등 확장 추세
알루미늄	낮은 전력요금을 경쟁력으로 하여 1979년에 Dubai Aluminium(DUBAL)를 설립	아부다비는 DUBAL과 합작으로 연산 120만 톤의 세계 최대 단일제련공장 건설 추진 중
제철	연산 50만 톤의 봉강을 생산하는 제철소가 있으나 국내수요(250만 톤)에 크게 못 미침	시설 확충 중이며 400만 톤 규모의 Emirates Iron and Steel Factory 설립 계획
시멘트	Union시멘트(UCC), 걸프시멘트(GCEM), 샤르자시멘트(SCIDC) 등 8개의 회사	최근 건설붐과 더불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증축도 급속히 진행

자료: 필자 작성.

■ 정보통신(ICT)산업 육성

- UAE는 비교적 발전되고 기술적으로 앞선 통신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무선전화 보급률은 100%를 상회하며 인터넷 보급률도 중동지역 중 최고 수준임.
- 최근까지 국영통신사인 Etisalat에 유선 및 무선 통신의 독점권을 보장해주어 통신산업을 육성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인근 국가의 통신시장에 진출함.
- 중동 ICT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Dubai Internet City를 조성해 현재 700여 ICT 업체가 입주해 있으나,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발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금융 및 부동산산업 육성

- 최근 UAE의 금융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오일머니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민영화 등 기업 IPO 증가에 따른 주식시장 성장, 부동산 개발에 따른 프로젝트 금융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결과임.
- 국내 금융기관의 육성을 위해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국제금융분야에서는 바레인과 경쟁하기 위해 ‘두바이 국제금융시장(DIFX)’을 개장하여 국제금융상품과 원유선물거래 등을 시작함.
- 부동산 개발 역시 매우 활기를 띠고 있는데, 정부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 부동산 소유 규제 완화, 부동산 관련 금융수단의 발전, 급격한 인구증가 등이 최근 부동산부의 배경임.
- 최근에는 두바이에 이어 아부다비까지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관광 및 문화 허브를 목표로 약 500억 달러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문화관광산업 육성

- 관광산업을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설정하고 메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아부다비는 두바이를 능가하는 문화관광의 허브를 목표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함.
- 아부다비는 해양스포츠, 휴양지, 쇼핑에 고급문화 요소를 가미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루브르, 구겐하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과 제휴하고 있음.

표 5. 아부다비의 문화관광 육성 프로젝트

프로젝트	내용
Saadiyat 섬 개발 프로젝트	문화지구, 해변, 마리나 등 조성
Saadiyat 섬 내 세계적 박물관 유치	루브르, 구겐하임 등
호텔 신·증축	객실 수 8,000개 ⇒ 25,000개(2015년)
아부다비 공항 증축	연간 처리능력 5,000만 명(2010년)
Etihad 항공 노선 증편	

자료: 필자 작성.

4. 평가

- UAE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다각화 노력의 결과, 일부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다각화에 부분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 비석유분야의 비중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2001년 70.5%였으나 2005년에는 64.3%로 최근 5년간 6.2%포인트 감소함.
-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석유분야가 확대된 것은 국제유가가 2배 이상 증가한 데 주로 기인했기 때문에, 비석유분야의 비중은 불변가격 GDP로 계산하면 같은 기간 67%에서 73.4%로 6.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이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부동산과 기업 및 개인 서비스업도 비교적 성장률이 높아 제조업보다는 유통업이나 건설업이 비석유분야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표 6. UAE의 산업분야별 GDP 비중 및 연평균성장률(경상가격 기준)

(단위: %)

분야	GDP 대비 비중		연평균성장률 (2001~05년)
	2001년	2005년*	
비금융분야	84.0	88.0	17.3
농림어업	3.5	2.3	5.5
광업	29.8	35.9	20.8
석유 및 천연가스	29.5	35.7	20.9
제조업	13.8	12.6	13.9
전기, 가스, 수도	1.9	1.6	12.1
건설	6.9	7.2	17.4
도소매	9.0	10.9	21.0
음식숙박업	2.1	1.8	12.5
운수, 창고, 통신	7.7	6.7	12.8
부동산 및 기업서비스	7.7	7.4	15.1
사회 및 개인서비스	1.6	1.6	15.7
금융분야	6.6	5.9	13.1
정부분야	10.6	7.2	6.3
전체	100.0	100.0	16.2
비석유분야	70.5	64.3	13.9

주: * 잠정치.

자료: UAE Ministry of Economy, *The Economic and Social Report 2005*(2006,10).

- 하지만, UAE가 추진한 산업다각화의 결실은 아직까지는 매우 제한적이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다각화를 주도한 산업은 도소매, 건설, 부동산 등인데 이는 모두 오일머니의 유동성 효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들로서 국제유가가 하락 반전하면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 비석유산업의 성장은 주로 부동산 개발 회사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주도되며, 이 회사들은 명목상으로는 민간이지만 대부분 왕족에 의해 관리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준정부부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투자는 수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잉투자나 자산가격의 버블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민간기업의 발전은 여전히 부진한데, 이는 과도한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인적자원 개발 유인의 부족, 숙련노동력과 경영인력의 부족, 연관산업의 미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기간에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움.
- UAE 정부의 막대한 교육지출에도 불구하고 UNDP가 평가한 UAE의 교육지수(education index)는 177개국 중 127위로 하위 수준임.
- 일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면 기업환경도 아직 불리하며, 특히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집행능력 부족이 국내 민간기업과 외국인투자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은행에 따르면 UAE의 기업환경은 155개국 중 69위(창업, 폐업, 계약이행 등은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며 주변 중동국가에 비해서도 뒤처지는 수준임.

표 7. UAE와 주변국가의 기업환경 비교(2005년 기준)

	UAE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종합순위	69	38	47	51
창업	143	147	87	61
인허가	67	34	95	114
고용	73	28	26	33
소유권 등록	10	3	79	19
대출	104	56	52	147
투자자보호	96	74	71	50
세금	6	5	8	4
수출입	19	87	69	79
계약이행	133	95	98	87
폐업	130	67	45	76

주: 155개 평가대상국 중 해당국 순위를 의미하며, 낮을수록 양호함.

자료: World Bank(2006), *Doing Business 2006*.

- 결론적으로 UAE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최근 오일머니를 이용하여 산업다각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인적자본의 부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제조업 기반의 취약 등이 다각화 진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